“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에 힘모아야”

환수 전문가, 경주 권고문 채택

세계 각국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이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 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외교부의 공동 주최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 참가한 8개국 23명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은 마지막날 ‘경주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에는 문화재 도난과 불법반출 방지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 공유 · 교류, 효과적 환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에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종교기관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소장기관과 협력해 대화와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문화재 환수의 모범적 선례”라며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문화재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가 간 행정적 · 사법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운흥사 동종 환수 본격화

불교 단체들 추진 의사 밝혀



일본 네즈미술관에 있는 운흥사 동종.

한국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일본 네즈미술관에 소장된 운흥사 동종을 찾기 위해 나선다.

불교계 시민단체 불교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영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등은 “네즈미술관 소장 운흥사 동종의 반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월 20일 밝혔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네즈미술관을 방문, 운흥사 동종이 네즈미술관에 소장 사실을 확인한 뒤, 한일 우호측면에서 동종을 복제할 수 있도록 ‘복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제허가 신청에 대해 네즈미술관 측은 최근 이메일을 통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불교계 단체들은 네즈미술관의 비우호적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 및 항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하고, 나아가 앞으로 운흥사 종의 반환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대웅전 건립, 근대 선지식 원력 담겨”

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종욱 스님 新편지 8점 공개

“조선불교의 생명이 이번 사업(각황사 건립)의 여하에 달려있고, 전국 조선팔도의 사찰에 위풍을 진작하고 독촉하는 것은 통도사와 범어사 두 본산의 완납에 달려있는데, 한 본산은 완납을 하였으니 이제는 화상께서 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란다.”

〈1937년 5월 5일 지암 이종욱 스님의 편지〉 中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를 건립하기 위한 생생한 과정과 근대 선지식의 원력이 담긴 편지글이 새롭게 발굴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발견된 지암 이종욱 스님의 친필 편지 8점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는 〈삼소굴 일기〉에 소개된 3편을 포함해 11편으로 늘었다.

이번 편지 공개가 이뤄지기까지는 경봉 스님의 상좌인 통도사 극락암 암주 명정 스님의 역할이 컸다. 현재 극락암에는 세 가마니 분량의 경봉 스님 친필 일기를 비롯해 한암, 만공 스님 등 고승들이 남긴 편지글 수백여 점이 남아있다. 명정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 현재는 전수조사는 30%가량 진행된 상황이다.

편지의 내용은 월정사 주지이면서 총본산 건설위원회 대표였던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총본산 건설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분담금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간은

경봉선사 유물 조사과정서 발견
이종욱 · 경봉 사이 오고간 편지서
각황사 건립 불사 중요성을 역설

1936년 6월 17일자부터 1938년 9월 22일자까지 약 2년이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총본산 건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2월 28일 총본산 건설 사업이 결정됐을 때 재원은 1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투입된 액수는 19만원에 달했다. 당시 1만원이 현재 5억원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황사 건립 불사의 소요비용은 100억 원대의 대작불사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개최한 지암 이종욱 스님의 편지 공개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 정승석 불교학술원장, 경봉스님문도회장 법산 스님, 김광식 교수 등이 지암 스님의 편지를 보고 있다.



새롭게 발굴관 지암 스님의 편지 중 하나. 발굴된 편지에는 총본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1938년 5월 13일 지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월정사 산림의 나무가 매각되면 월정사 분의 납입금을 완납하는 데 사용하려 했는데 매각되지 않아 그것을 못하게 됐다”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새롭 발견된 편지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 측은 조계사 창건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과 경봉 · 지암 스님 등 근대 선지식의 면모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편지를 분석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서간문에는 경봉 스님이 총본산 건립 과정에서 통도사 주지로서 큰 기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선승들이 현실과 종단에 무관심했다는 정서를 불식시킨다.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도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것을 경봉 스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황사 재건축, 조계종 창종 등 총본산 건설운동을 편지를 통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현 조계사 대웅전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헌신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일제의 식민지 불교정책의 산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지암 스님에 대한 재인식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던 지암 스님은 일부 행보로 인해 친일파로 낙인찍힌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공개되는 편지에서 그의 고뇌, 지성, 헌신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이 자료를 통해 이종욱의 불교관, 사판관, 종단관 등을 보완, 재인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 700년만의 귀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17일 국립중앙博에 기증

일본에 반출됐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한 기업가의 헌신으로 7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업가는 사재를 털어 구입한 수월관음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0월 17일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에게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1점을 기증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윤 회장은 올해 초 재일교포 고미술업자에게서 고려불화를 구입하고 문화재청 등의 자문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보타락가산에 주석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도상화 한 수월관음도는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 꼽힌다. 현재 수월관음도는 전 세계에 약 46점이 남아 있으며, 이중 5점이 리움박물관(2점),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우학문화재단, 호림미술관에서 소장 중이다. 하지만 국립박물관에는 단 한 점도 없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사진 왼쪽)과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를 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윤 회장의 구입 · 기증에 따라 국내 수월관음도는 총 6점이 됐으며, 국립박물관은 수월관음도를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기증된 수월관음도의 제작 시기는 14세기 중엽으로 화면 크기는 세로 91cm, 가로 43cm로 큰 크기는 아니다. 시기가 오랜된 만큼 박락과 훼손이 진행됐지만,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등 화면의 중요한 부분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해설 담당자가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에는 없는 희귀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고려불화라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돌리고 싶었다”면서 “또한 문화재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재들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응송은 초의 茶麥을 이었다”

정서경 소장, 초의 열반 150주년 세미나서

초의 스님의 다맥에 대한 계승 논쟁 중 하나는 응송 박영희 스님에 대한 부분이다. 10월 15일 열린 초의 선사 열반 150주년 학술대회에서도 초의 스님 다맥 전승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정소경 목포대 한국전통차문화연구소장〈사진〉은 ‘초의차의 전승맥락과 제언’에 대한 논문 발표에서 응송 스님은 초의 선사의 다맥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초의차의 전승이 범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동의하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승 문제를 되짚었다.

현재 응송 스님이 초의 선사 다맥을 전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논지는 초의와 응송의 계보가 다른 점과 범해는 호의의 직계여서 응송에게 전승이 안 될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대둔사가 서산문도 중 소요 문중과 편양 문중이 함께 살면서 13대 종사와 13대 강사를 계속 배출했다”며 “소요 문중은 심적암에서, 편양 문중은 대광명전에서 따로 문중 선사를 모셨다면 1962년 대광명전을 지키고 있던 소요 문중인 지산 화중의 기록은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산 화중의 제다법과 당시 대둔사에서 차를 만들었거나 생활했던 시대의 구술자들이 말하는 제다법, 응송의 제다법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응송 스님은 아암 혜장의 법계이고 소요에 속한 문도이지만, 사찰의 계맥과 다맥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 소장은 “〈불조종파계보〉로 다풍이나 다맥을 아우를 수 없다”며 “다풍은 사찰의 유풍으로 전해진다. 이런 다풍이 대둔사에 남아 있고, 이것이 초의차의 근간”이라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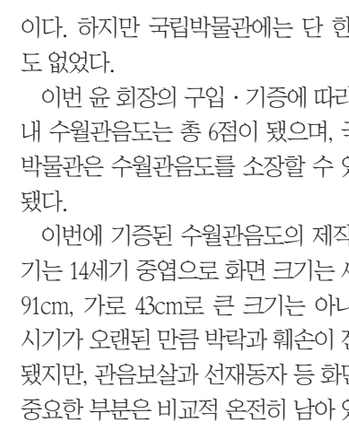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
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史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